



2024년 8월 11일(제1206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나의 살이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체성사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나의 살이다.”라는 말씀은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용어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에서는 ‘몸’을 주신다고 했지만, 요한 복음서에서는 ‘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복음서가 ‘몸’ 대신 ‘살’이라고 한 것은 로고스 찬가에서 나오듯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말씀이 살이 되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피까지 마시라고 한 것은 분명히 성체성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우리가 갈림이 없이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치가 성체성사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요,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 시선,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느끼실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이웃을 대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성체성사를 통해 이룬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잘 유지하는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형주(베드로) 신부
명성대(공군 제8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1열왕 19,4-8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 시

에페 4,30—5,2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요한 6,41-51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여섯 번째 시

예수 마리아 요셉,
오두재에서, 1858년 10월 4일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

작년에 신부님께 서한을 보내고, 또 르그레즈와 신부님과 페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서한을 보냈는데 신부님께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 대해서는 파선당하였다가 생환한 제주도(濟州島) 사람한테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중국 관원에 의하여 북경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조선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 바울리노가 전해 준 서한과 신자들을 찾는 데 필요한 안내 정보를 가지고 교우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크게 고생은 하였으나 하느님의 은혜로 다행히 (배티) 교우촌을 발견하고, 또 그곳을 거쳐 저와 폐롱 권(權) 신부님이 함께 있던 교우촌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서 그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섭리에 대해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주민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교우를 찾으려는 열성을 보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며, 장차 좋은 교우가 될 사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은 제주도에 천주교를 전파할 훌륭한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나 역시 그렇다.

왜, 나였냐고 물었다.

그렇다.

사랑 때문이란다.

몇 번을 물어도

사랑이란다.

왜, 나인 거냐고 물었다.

또 사랑 때문이란다.

나 역시 그렇다.

왜, 나여야 하냐고 물었다.

답은 또 사랑인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시막에서의 엘리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그만큼 엘리야는 그들에게 익숙하고 존경받는 예언자였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나온다.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받고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나갔고, 쓰리나무 아래 누워 하느님께 죽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한다. 그가 깨어 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이 음식에 힘을 얻어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고 전한다.

본 그림은 그 장면을 충실히 묘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엘리야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오른쪽 모퉁이 부분에 다시 길을 떠나는 엘리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디에릭 바우즈, 1464년~1467년 작
패널 위 유화, 185x194cm / 로이벤, 상베드로 성당

인간은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여정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맛난 것, 별난 것을 먹어도 우리는 곧 다시 배고프다. 죽는 순간까지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여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은혜(엘리야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백호 이원복 신부

◆ 교구장 동정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 8월 4일(주일) ~ 13일(화)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환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